

전주시민이 필요한 주거복지정책은

에너지비용 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전세자금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주 주거실태조사' 결과발표... 주거약자에 필요한 것 소득보조 > 주거지원

전주시민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자가 점유율과 월세비중이 높은 반면, 전세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에너지비용 지원(19.5%), 공공임대주택 공급(18.1%), 전세자금대출(15.6%), 주택구입자금대출(15.2%) 순으로 집계됐다.

전주시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공식통계로 지정된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주시 주거복지정책의 중장기 방향설정과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시 전체 가구의 27.9%는 1인 가구로 전국의 1인 가구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2인 가구는 25.2%, 3인 가구가 20.9%, 4인 가구는 18.1%로 각각 조사됐다.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가구가 61.4%로 전국의 자가 비율(약 54%)보다 높은 반면, 전세 가구 비율은 11.1%로 낮은 편에 속했다. 또, 월세 가구 비율은 23.8%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고, 월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주요요인으로 손꼽혔다.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58.6%로 가장 많고, 단독·다가구주택 35.1%, 연립·다세대 주택 3.4%로 집계됐으며, 아파트 거주 가구 중 76.8%가 자가 가구, 단독·다가구주택 거주 가구 중 제일 많은 점유형태는 월세(41.5%)로 조사됐다.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모든 항목에서 3.4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방음 상태가 3.41로 가장 낮고 채광 상태가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는 난방에 대한 만족도가 2.80점으로 가장 낮았고, △해충 등의 위생 상

태 △공공/습기 상태 △화재 위험 등이 모두 3점 이하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일수록 주택 상태가 열악한 것을 확인했다.

전주시역 자가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1억 8,893만원이고, 전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8,016만원,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1,305만원과 24.5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의 주거 관련 대출금액 평균은 자가 가구가 7,253만원이고 전세 가구는 5,260만원이며 월세 가구는 2,827만원이다.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에너지비용 지원이 19.5%로 가장 높고 공공임대주택 공급(18.1%), 전세자금대출(15.6%), 주택구입자금대출(1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약자 심층조사에서는 점유형태가 자가 50.4%, 월세가 31.1%로 전체 가구 대비 자가 비

율은 낮고 월세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 목욕 시설과 난방시설 없는 비율이 전체 가구(0.7%)보다 높은 1.6%이며,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비율도 전체 가구는 27.5%인데 비해 주거약자 가구에서는 40.8%로 높아 주거 상황이 더 열악했다.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정도는 전체 가구(2.93점)보다 높은 3.30점이며, 주거비 부담으로 식료품비를 줄인 가구 비율도 5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약자 가구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로서는 소득보조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원(26.1%), 의료지원(17.4%), 일자리지원(11.5%)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주거약자 가구의 55.4%가 주거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거복지 정책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의 가구특성과 주택유형, 가구의 주거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주거약자 심층 조사한 이번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조사 결과를 활용해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추가 지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12월 3일부터 시행

당오는 12월 3일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전주시보건소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은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수영장, 태

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업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시에 등록·신고된 당구장 334개소와 스크린골프장 134개소 등 총 858개소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돼,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체력과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 거칠 예정이며, 오는 2018년 3월 2일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여성승객 보며 음란행위 택시기사 집행유예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정윤형 판사)은 28일 공역음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정오께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탄 B(34,여)씨를 백미러로 잠깐씩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설명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없으므로 공역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택시 내 CCTV영상에서 A씨가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된 점과 B씨의 진술에 비해 A씨

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음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중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 첫마중길 손님 맞이 정자나무

시, 대형 팽나무 2그루 식재...첫마중길 모든 공정 마무리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마을 어귀에서 손님을 맞던 정자나무와 같은 팽나무 2그루가 식재됐다. 이로써 전주 첫마중길 조성사업은 마침내 종주부가 찍혔다.

전주시는 그간 수목식재 시기가 맞지 않아 수목이 고사할 위험이 높아 미뤄왔던 대형 팽나무 2그루를 첫마중길에 식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첫마중길에 식재된 팽나무는 높이 15m와 뿌리부분직경 1m 규모의 1그루(전주역 앞)와 높이 10m와 뿌리부분직경 90cm에 달하는 1그루(한양주유소 인근) 등 2그루다.

첫마중길은 전주에 첫 발을 내딛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관광객이 지나쳐가던 공간을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 역세권 경계를 되살리기 위함이다. 또,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시가 이러한 첫마중길에 거대한 팽나무 2그루가 심은 것은 마을 어귀를 지키던 정자나무처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고목은 더운 여름철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더위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

도 제공하고, 첫마중길에 식재된 느티나무 가로수와 조화를 이뤄 첫마중길을 더욱 풍성한 도시숲으로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팽나무 2주 식재를 끝으로 첫마중길 조성사업의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는 겨울철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첫마중길 850m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 빛의 거리로 조성한다.

시는 또 내년에는 첫마중길을 대한민국 문화별시 전주의 품격을 뽐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계절별 테마행사 및 각종 문화예술 공연 등을 활성화시켜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첫마중길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는 생태, 직선보다는 곡선을 지향하는 전주시의 상징 공간이다. 상징 고목이 자리잡으면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처럼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며 좋은 첫인상을 심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역 주변이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생태, 사람으로 가득한 길,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마을 어귀에서 손님을 맞던 정자나무와 같은 팽나무 2그루가 식재됐다.

익산 육가공 공장서 화재

28일 오전 2시 15분께 익산시 남산면의 한 육가공 공장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3,000㎡와 제품이 타 1억5,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완산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 전달

완산경찰서는 28일 경찰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경제지원을 위한 '온 더하기 기금' 300만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강원수 완산서장과 박정순 경찰발전위원장은 이날 기금 전달식을 하며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사회적약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들의 빠른 경제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매년 '온 더하기 기금'을 후원 전달하기로 했다.

완산서장과 경찰발전위원장은 "이번 기금전달 통해 기금이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에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정읍 산업단지 공장 화재 외국인 근로자 1명 숨져

28일 오후 12시 53분께 정읍시 태인면 북면산업단지의 한 공장서 화재가 발생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불탱크 등 장비 10대를 동원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이 화재로 인해 미얀마 국적의 근로자 A(25)씨가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

공장 관계자가 "공장에서 '핑'하는 소리가 나더니 불길이 번졌다"고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피해규모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